

4~5» 교내 SNS 논란

8» '병윤네 무인마트'

사회봉사 학점인정 신청 및 실적등록 신청

서류 제출기간 : 2016년 11월 1일(월) ~ 2016년 11월 24일(목) 17:00까지
*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일체 서류를 받지 않음
제출 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실적등록 신청서, 봉사활동확인서 원본 및 사본, 소감문
서류양식은 <http://service.khu.ac.kr/> 접속 후 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진=권유진 기자)

‘대학본부의 합의없는 자율예산 축소’ 학생들 기자회견·항의농성 열어

자율없는 자율예산

권유진 기자 hahayj123@khu.ac.kr

‘자율예산’을 둘러싸고 학생과 대학본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학과 자율예산정상화특별위원회 등 ‘건강한 대학자율을 원하는 경희대학교 학생 일동’은 지난 29일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서 ‘건강한 대학자율을 침해하는 경희대학교 본부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농성’을 진행했다.

“예산 축소, 피해는 학생 뒀”

총학생회 단재민(미술학 2010) 부학생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 이후 학생지원비, 실험실 습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이제까지 약 79.5억 가량이 줄었다”며 “본부에서는 이미 예산을 배분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단과대 등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 어떠한 집행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율예산 축소의 여파로 정기 답사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학과 최은혜(사학 2013) 학생회장은 “학교의 예산구조개편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건 학생”이라며 “사학과 자율예산정상화특별위원회가 1월부터 지금까지 활동하는 동안 본부와 소통할 수 없어 허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본부와 학생의 직접적인 소통, ‘예산구조 개편에 학생을 배제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한 최은혜 회장은 “지식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 예산으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탓에 학생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자율예산’은 자율운영제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단과대학 각 자율운영주체가 그 권한과 책임 하에 의사결정과 실행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본부의 관련부서는 이를 지원한다. 각 단과대학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단과대학 특성화를 유도하자는 취지의 이 제도는 시행초기 많은 기대를 모았다.

“소통단절로 갈등 심해져”

그러나 2014년 자율운영예산 배정기준을 개정하며 자율예산을 대폭 축소시킨 대학본부에 총학생회가 그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자율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9년 자율운영제가 도입된 후 학생과 자율운영단위 혹은 본부 간에는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되어 왔다. 2014년에는 총학생회에서 자율운영예산위원회의 소통과 투명한 자율운영예산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부총장 행정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1월과 5월에도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본부와 논의를 시도했으나 소통이 단절되었다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학생들의 주장이다.

예산 편성과정 공개 요구도

문과대학 박원규(사학 2014) 학생회장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경희대학교는 자율예산제도, 등록금 책정위원회처럼 다른 사립대학에 비해 민주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다지만, 등록금책정위원으로 참여한 학생이 예산 운영 과정에 대해 질문하면, 본부 직원이 회의를 통해 알려주겠다고 통보한다”며 학교의 소통불능을 꼬집었다. 또한 “우리는 제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나은 경희대학교가 되기 위해 꾸준히 소통하고 또 소통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항의농성은 정문에서부터 본관까지 “소통이 있어야 참된 교육 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들고 행진한 뒤, 본관 앞에서 준비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발표된 성명서 말미에서 기자회견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율예산 감축의 해명과 해결 ▲현재의 예산구조 개혁과 편성과정 공개 ▲소통하는 행정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논의테이블 마련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래정책원 기획예산팀 관계자

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총학생회에 자율예산 관련 TF팀 구성을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며 “총학생회나 다른 단과대의 주장처럼 소통을 무시한 적은 없다”며 “사학과의 경우에도 부총장 교부금을 지급하는 등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소통 무시한 적 없다”

사학과의 속해 있는 문과대 행정실은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사학과는 춘계답사에 작년 대비에 올린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해 2학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줄어든 예산이라도 그 비용에 맞게 적절히 배분해 사용하는 것은 학과의 자율”이라고 이야기했다.

자율운영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학생과 대학본부와의 소통 문제, 예산 편성과 그 규모를 둘러싼 논란까지, 갈등의 소지는 여전하다. 2013년 말, 조인원 총장은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심의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밝혔다.

과연 이번에는 학생들과 본부간의 의견 격차를 줄이고, 건강한 대학자율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Newsmaker

이동진(경제학 2012)
경경대 학생회장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행정심판청구

정현진 기자 ohyunjin@khu.ac.kr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정송절차로, 재판 이전에 해당 문제가 교정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우리학교 경경대 이동진(경제학 2012) 학생회장은 지난달 31일 두 건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에 대해 최종처분자인 조인원 총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4일 ‘각 단과대학 및 자율예산단위의 2012~2016학년도 자율예산총액 및 산출근거’, ‘각 단과대학 및 자율예산단위의 자율예산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그 부속서류’, ‘각 단과대학 및 자율예산단위의 2009~2011학년도 자율예산총액 및 산출근거’를 학교 당국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대학은 각 단과대학 및 자율예산단위의 2012~2016학년도 자율예산총액만을 공개했으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중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에 근거하여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이 회장은 지난달 31일 ‘2012~2016학년도 자율예산·산출근거’와 ‘2012~2016학년도 자율예산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그 부속서류’의 정보 비공개처분에 대해 최종 처분자인 조인원 총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각 단과대의 자율예산 산출공식이나 근거 등의 정보가 구성원들과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자율예산이 삭감되고 자율예산 산출 공식이 개악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도 수십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지만 납득할 만한

이유로 비공개 처분된 것은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번 세 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행정심판까지 준비한 것은 “구성원에게 필수적으로 공유되어야 하는 정보임에도 학교 당국이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라며 “어떤 것을 공개해도 되는가에 대한 학교와 본인의 판단이 달라 정보를 얻고자 행정심판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2015년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문과대의 자율예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다. “공개해서는 안될 경영상의 비밀이라면 모든 단과대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그러나 경경대는 공식홈페이지에 ‘2012학년도 자율운영예산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올려져 있고, 문과대의 경우에도 청구했을 당시 공개 처분된 정보인데, 전체 단과대로 청구하니 공개가 불가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미 타 대학 사례들과 대법원 사례에서도 해당 청구권이 충분히 공개할만한 정보라는 것을 확인했기에 행정심판청구 결과를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청구했던 자료를 받은 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각 단과대별 통계나 산출공식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등의 정보를 구성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학교 창학정신에는 자율운영을 민주화의 꽃으로, 경희 구성원 모두가 제도와 정책의 주체로 바라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만큼, 구성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취지를 살리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서 우리학원이 좀 더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전문가 칼럼

포켓몬 고의 열풍과 스토리텔링

민경배 (IT디자인융합학부)교수 >>7면



시선

사설

구성원 앞에 별안간 던져진 ‘미래창조스쿨’

지난 제1605호 사설에서 우리신문은 당시 갓 출범한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혁신위)’를 향해 ‘제 구성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세밀하게 이뤄지는’ 상향식 의사소통구조를 주문한 바 있다. 그간 우리학교가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내릴 때마다 ‘리더십의 결정을 구성원에게 통보하는’ 하향식 의사소통방식을 애용해왔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의 구조와 방식이 상향식이나, 하향식이나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진행되는 방법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이것은 리더십이 구성원을 정책의 동반자로 여기느냐, 혹은 정책의 대상자로 여기느냐 하는 ‘관점’의 문제이기도 하다.

혁신위의 첫 행보가 될 ‘미래창조스쿨’의 출범이 구성원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상향식 정책의 결과인 것처럼 일컬어지고 있는 미래창조스쿨의 설립이, 그 결정과정에 있어선 명백한 하향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본부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미래창조스쿨이 ‘지난해 미래대학 리포트 2015에 나타난 학생들의 절규와 희망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설립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구성원은 이 미래창조스쿨에 대한 소식을 학내가 아닌 외부 광고와 일간지 보도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접했다. 구성원 입장에서 ‘우리는 정책의 동반자인가, 아니면 대상자인가’라는 의문이 틈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런 의사소통방식은 하루 이들의 일이 아니다. 구성원 간에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대학 측이 어떤 테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여론이 들끓으면 대학 측은 구성원이 묻는 것들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답변을 제공하다가, 애초 대학 측이 임의로 설정했던 시한이 임박하면 ‘미룰 수는 없으니 일단 진행한다’는 식으로 안건을 시행하는 것이 그간 대학본부 측이 보여 온 의사소통프로세스의 주된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번 미래창조스쿨의 설립도 이 익숙한 프로세스를 밟아가고 있다.

그 간의 충분한 소통이 없었기에 이 사업에 대한 온갖 의구심도 떨칠 수가 없다. 사업의 기획의도와 상세 운영안에 대한 검토는 차치하더라도, 대학 측이 내놓은 사업 일정부터 많은 우려를 낳는다. 이번 학기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될 것이라는 이 사업 일정은 과연 적정한가? 11월부터는 커리큘럼 확정이나 교강사 모집과 같은 실질적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텐데, 그것을 낚은 두 달 동안 충분히 검토하며 준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우려들이 모여, 구성원의 불안을 형성한다.

새로 도입되는 정책과 시스템은 그것이 무엇이든 일정 기간의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시행착오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불편함이나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은 항상 구성원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향식 의사결정 아래 도입된 정책과 시스템은 시행착오 과정에서 구성원의 불안과 불만과 반발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은 공동체 통합에 결코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구성원 간 이해의 토대를 바탕으로 테제를 던지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함께 이어가야만, 새로운 정책과 시스템을 함께 완성시켜갈 수 있는 것이다.

올해 도입된 ‘독립연구’ 수강생의 72.7%가 ‘매우만족’

미디어 여론동향 2016. 8. 15 ~ 9. 2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지난 17일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다.(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양 캠퍼스에서 열려/2016.8.17) 서울캠 11개 대학원에서 석사 716명, 박사 114명, 국제캠 7개 대학원에서 석사 270명, 박사 70명이 각각 학위를 받았다. 단과대학에선 서울캠 890명, 국제캠 876명 등 총 1,766명이 졸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대나무숲에선 변경되는 국제캠 기숙사 출입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우정원 출입방식이 손등혈관인식기로 바뀐다네요’라는 글(#경희숲_15966, 2016.8.20)의 글쓴이는 ‘학생증은 못 쓰고 생체정보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시스템에 손등을



이 주의 주제 - 단과대학 자율예산 자율예산 삭감, 대학의 책임 방기다

이수형 기자 dltbdf112@khu.ac.kr

“프라임 사업에 큰 예산이 걸려있는 데다, 선정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지난해 12월 프라임사업 참가 당시, 총학생회와의 면담에서 대학본부 측이 발언한 내용이다. “재정수입 확충 안이 없는 상황에서 15억 원 학생경비 지원약속은 불가능하다”. 지난 1월 등록금정책위원회에서 총학생회가 특별교부금 15억을 요구한 것에 대한 서울캠퍼스 한군데 부총장의 답변이다. ‘학교에 돈이 없어서’라는 식의 호소는 대학본부가 사업진행 강행에 위력 있는 무기가 되고 있다. 이번 ‘자율운영예산 삭감’ 논란에서 또한 마찬가지다. 대학본부는 동결된 등록금수입과 물가상승을 근거로 건축재정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수익능력을 갖춰 최소한의 교육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은 대학의 의무다. 정부는 교사교지 면적, 교원 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현황 등의 기준으로 대학설립을 제한해, 대학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교육여건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대학의 수익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쓰인다. 하지만 우리대학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기준액의 29%에 그치며, 자산전입금이 수년째 0원인 것을 보면 기준액 만큼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기란 요원하다. 한편, 수익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주식회사 경희매니지먼트컴퍼니(KMC)에서 학교회계에 전입되는 금액은 작년도 기준 7억 원이다. 교원퇴직금(약 13억 원)보다 적은 액수다. 심지어 경희계약은 2013년 35억 원의 적자를 끝으로 사업을 접었다. 기부금 또한 2013년 약 282억 원에서 지난해 기준 약 139억 원으로 2년 새 반 토막 났다.

본부는 기존의 대학행정 방식이 재정위기에 일조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잊혀진 Finance21을 비롯해 반복되는 재정 거버넌스 개편은 이번 해 역시 진행된다. 미래정책원에 있던 예산권이 재정경영원으로 옮겨간다. 필요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던 것에서, 이번 개편 이후부터는 재정상황에 맞춰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계산이다. 재정부총장도 선임될 예정이다. 수익능력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에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90년대 기자재로 공부하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은 대학본부의 책임방기다. 연례행사가 사라지고, 수업용 기자재가 부족한 수준을 넘어 문과대학 등 일부 단과대학에선 재정난으로 ‘학과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 추가예산이 투입되기 전까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다. 대학본부는 진정 이를 모르는가.

더 좋은 교육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법인의 수익능력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수익능력에 대해 고민하기 이전에, 학교의 수입상황에 관계없이 대대적인 교육환경이 담보돼야 대학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창업 권하는 사회

세시봉

기호웅 <뉴스총괄팀장>



오랜 청년실업의 결과인지 아니면 창업이 새로운 경제 대안으로 떠오르기 때문인지, 사회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기업에서 진행되는 창업 관련 공모전의 수가 늘었으며 언론에서도 창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이런 흐름에 적극 동참하는 모양새다. 창업과 관련된 교과목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학교 주최로 진행되는 관련 행사도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도 어려운 취업현실에 한계를 느끼고 점차 창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추세다.

이전부터 우리 신문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청년사업가들을 여러 차례 소개했다. 플리마켓을 통해 새로운 의류시장을 개척한 ‘웃장을열면’, 참신한 가족아이템으로 큰 인기를 얻은 ‘데이커스’, 모두가 주목하지 않았던 과일에 집중한 ‘청춘과수원’, 스테이크를 푸드트럭에서 판매한 ‘스테이크아웃’ 그리고 청년은 아니지만 이번 신문에 소개한 ‘병윤네 무인마트’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익숙한 소재들을 참신한 방법으로 접근했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발견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관심과 열정의 결과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창업하기에 좋은 나라일까? 성공한 청년사업가의 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다. 퇴직을 앞두는 아버지 세대들도 새로운 출발을 위해 창업에 관심을 갖는다. 초기자본이 없는 청년들과는 달리 퇴직금을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출발로 사업을 시작하는 기성세대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하지만 결과는 눈에 띄게 늘어나는 치킨집과 카페 수만큼이나 비극적이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비용이 그들의 퇴직금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은 우연한 결과가 아닐 것이다. 청년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세대에게도 세상은 창업을 권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무리하게 창업의 벼랑 끝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다. 빛이 강하면만큼 그림자도 짙다. 사람들이 창업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했을 때 재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로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은 자칫 창업실패로 인해 앞으로 수년을 발목잡힐까 걱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기도 한다.

기자의 아버지도 지난 7월, 31년간 몸 담았던 회사를 나왔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여러 차례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한 가정을 책임져야하는 가정의 의무감은 이러한 위험조차 감수하게 한다. 기성세대도 우리만큼이나 절박하다. 한 가정 안에서 부모님 세대는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려워 창업을 준비하고 자식세대는 취업이 안돼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창업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성공은 단 한 번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안전망을 확보한 토대위에서 가능했다. 무분별하게 창업만을 권하기 보다 우리나라에 왜 성공한 창업사례가 부족한지 점검하고 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망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혜경 | 편집장 김도엽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경정 02-441-7317(미래71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행정구조 개편, 기획·재정 전문화하고 조직은 단순화 한다

행정 거버넌스 개선안

이수형 기자 dltd112@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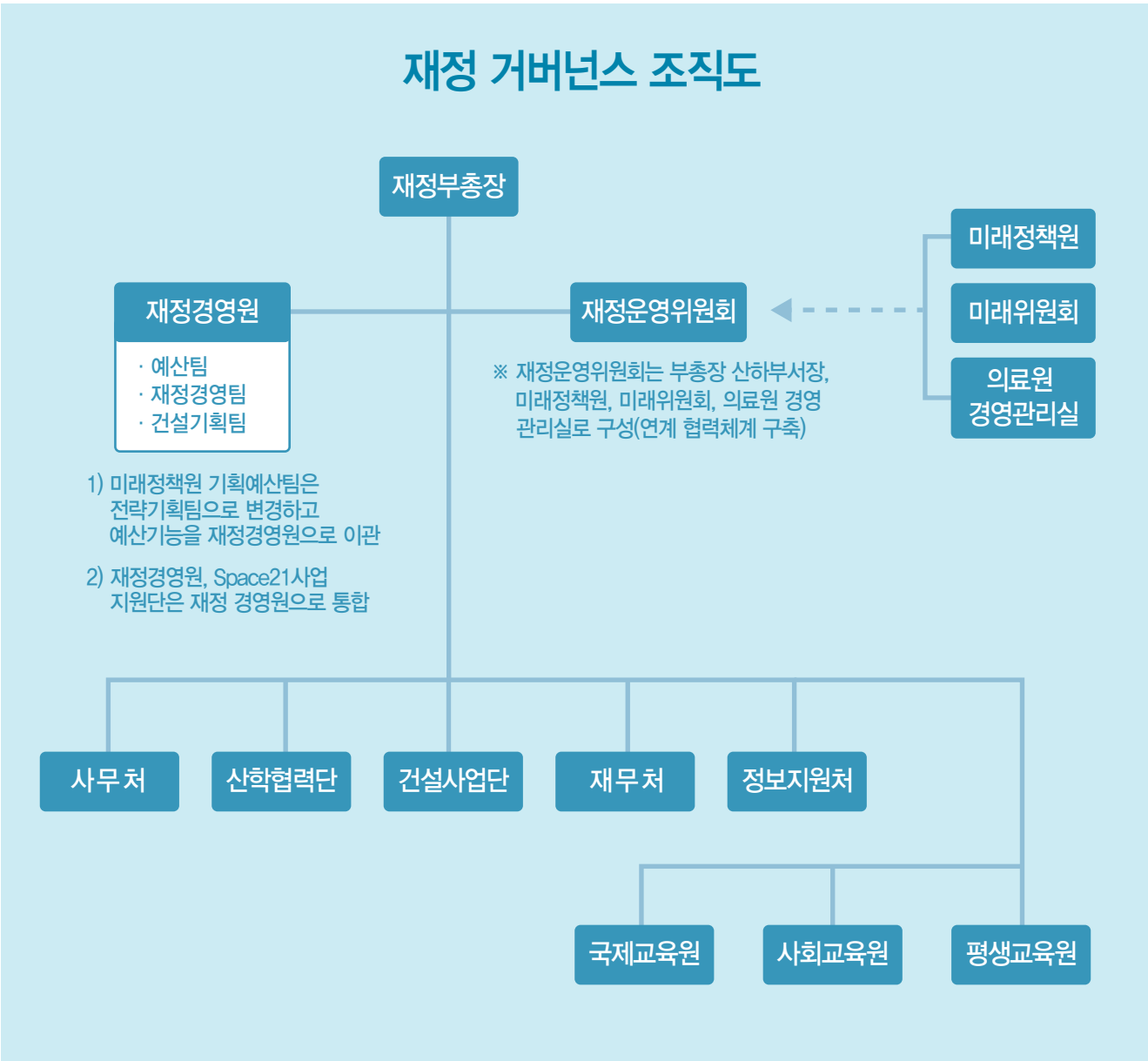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혁신위)가 ‘행정 거버넌스 1단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 거버넌스 강화 ▲행정 거버넌스 효율화를 기조로 하는 이번 개선안에 따라 양 캠퍼스 일부 부서가 공동기구화 되는 등 행정구조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기획·재정 거버넌스 재편 : 재정담당 부서 위상 강화

기획부서인 미래정책원과 재정부서인 재정경영원의 기능이 재편된다. 먼저 미래정책원에서는 부원장직이 없어진다. 기존 1원장, 3부원장, 3팀장으로 운영돼 왔으나 결재 과정 단축을 위해 1원장, 2팀장 체제로 바뀐다. 더불어 미래정책원 기획예산팀이 ‘전략기획팀’으로 그 역할이 변경된다. 기획예산팀의 예산 관련 기능은 재정부총장 산하기구인 재정경영원으로 이동하고, 개편된 전략기획팀은 기획분야 역할만을 수행한다. 재정부총장은 현재 공석이다. 일각에선 예산권과 분리된 미래정책원의 기획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혁신위 측은 “예산조정 기능이 사라져도 기획부서는 정기회의를 통해 가용예산 정보를 항상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미래정책원은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대학위상 제고, 외부평가 대응 등의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사실 예산을 심의·조정하는 권한이 기획담당부서와 재정담당부서 사이에서 이동하는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4년 ‘재정 위기론’이 거론되던 당시 기획부서에서 예산권이 분리된 점이 재정곤란의 원인으로 지목됐고, 이를 보완하고자 미래정책원 내에 예산담당부서인 기획예산팀이 신설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수입(재정)에 맞춰 지출(예산)을 관리하기 위해 예산권이 다시 재정경영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재정확충과 재정기획·심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재정부총장이 임명된다. 임명된 재정부총장은 예산 편성·운영과 재정 확보 계획수립을 총괄한다. 재정부총장을 보좌할 재정경영원은 양 캠퍼스 공동기구로서 예산편성 및 운영기능과 재정사업 기획, Space21사업지원단의 건설기획 기능 등을



혁신위는 재정·예산·건설사업의 기획부서를 일원화하고, 각 재정단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 거버넌스 강화’를 추진한다.

통합 수행한다. 이와 함께 재정운영위원회가 신설된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재정부총장을 정점으로 대학·법인·의료원의 재무담당자들로 구성된 회의체다. 격주로 사안별 회의를, 분기마다 전체위원 합동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양캠퍼스 인사팀 → 인사처로 통합

행정부문은 효율화를 위해 편제를 단순화한다. 양 캠퍼스의 일부 행정기구가 공동기구화 된다. 양 캠퍼스 사무처에 속해있던 인사팀이 사무처에서 분리돼 인사처로 이름을 바꾸고 통합운영 된다. 일관성 있는 인적자원관리 기준을 확립하려는 시도다. 같은 목적으로 혁신위 측은 장기적으로는 가칭 ‘경희인재원’을 통해 직원과 교원의

인적자원을 통합 관리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교류처와 입학처 또한 각각 공동기구화 된다. 공동기구화는 양 캠퍼스의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구조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캠퍼스 간 부서통합은 여러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공동기구의 부서장이 한 캠퍼스에 편중될 경우 다른 캠퍼스의 위상이 격하될 우려가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해결책으로 교차근무제를 내놓았다. 직원노조 측은 “현재도 교차근무에 대한 암묵적인 규칙이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을 정해 교차근무수칙을 엄격하게 지켜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 측은 “지속적으로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집해 나갈 것”이라면

서도 “부서 수와 보직 수를 줄여나간다는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뮤니케이션 센터도 설립된다. 홍보실이 대외협력처에서 분리되고, 출판문화원과 통합해 커뮤니케이션 센터로 명칭이 변경된다. 홍보부서를 총장 직속 기구화해 경희학원 산하 기관과의 연계를 시도하기 위해서다. 유관부서를 통합해 업무 전문성을 끌어올리려는 목적도 있다.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대학과 의료기관, 사이버대학의 홍보분야 협력관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혁신위는 홍보기구와 멀티미디어·디자인·출판기구가 모인 이 부서를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라는 표현으로 소개했다.

일부 단과대학과 유사 학문을 다루는 대학원의 행정도 통합된다. 단과대학 학장이

대학원장을 겸직하고 부학장, 부원장, 행정실장이 학장을 보좌한다. 이번 개편으로 통합운영 될 예정인 곳은 ▲경영대학-경영대학원 ▲예술디자인대학-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정경대학-언론정보대학원 ▲체육대학-체육대학원 ▲호텔관광대학-호텔관광대학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법무대학원 ▲국제대학-국제대학원이다. 위 대학은 단일한 자율운영단위가 된다.

직원노조,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은 공감”

노동조합 송해경 위원장은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우리대학이 타 대학에 비해 부서 수가 많고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되는 면이 있어, 노조가 제시할 세부조건이 반영된다면 행정 편제 단순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감축은 예정된 바 없지만, 공동기구화 추진 과정에서 교직원의 업무강도가 높아질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행정구조를 간소화하는 것은 학교 발전방향에 부합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며 “캠퍼스 간 이원화된 행정이 유발한 행정력 낭비를 인지하고 있기에, 캠퍼스 간 공동기구화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행정단위 통합안’은 지난 2013년 말에 등장한 계획이다. 그동안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돼 오며, 자연스럽게 합의된 사항이라는 의미다.

혁신위는 지난 7월 29일부터 일주일동안 진행된 온라인 공청회부터 지난 8월 진행된 양 캠퍼스 오프라인 공청회까지,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거듭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노사간 좌담회가 개선안 추진 전 마지막 수순이다. 하지만 혁신위는 “세부안은 직원 의견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적지 않은 직원들이 수년간 행정개편이 반복돼 온 탓에 혁신위 측이 또다시 개편을 시행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위 유정원 사무총장은 “이번 행정개편이 이후 진행될 교육·연구 부문의 혁신의 토대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정 거버넌스 1단계 개선안은 이달부터 추진돼 이듬해 3월, 피드백과 함께 2단계 계획 추진될 예정이다. 2단계 계획에는 기능형 부총장제에 부합하도록 부총장관할 부서를 재편하고, 중앙도서관 등을 추가로 공동기구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안내

신청대상

2016~2학기 국가장학금 1차 미신청 재입학생, 편입생, 복학생

재학생은 1차 기간 신청이 원칙이나,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가능

※ 2차에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 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공인인증서로 제출 → 재심사 후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 동의 기간

가. 신청 : 2016.08.18.(목) ~ 2016.09.06.(화)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16.08.18.(목) ~ 2016.09.09.(금)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에서 신청



한국장학재단 / 학생지원처

학생 통학버스 운행시간 안내(학기 중)

1. 등교

시간대	수원 발 (세명지하차도 위)	부평역 (우체국 맞은편 인천방향 50m 횡단보도 앞)	주안역 (사랑병원 건너편)	송내사거리 (자동차대매상사 앞)
6시	-	50	50	7:00(송내사거리 발) 7:05 (부평역 발) 7:15 (주안역 발)
8시	15, 30	-	-	-
9시	30	-	-	-
10시	00	-	-	-

2. 하교

시간대	수원행	인천행 (송내역→부평역→주안역 경우)	비고
18시	00	00	
19시	00	00	
20시	-	00	
21시	00	-	
요금	700원	2,000원	등,하교 동일

3. 국제캠퍼스 ↔ 서울캠퍼스 셔틀버스

국제캠퍼스 출발		서울캠퍼스 출발	
사색의 광장	07:20, 7:30, 09:15, 12:00, 12:10, 15:00	온실 앞	10:00, 12:00, 13:30, 16:00, 17:50, 18:00
요금 1,500원			

4. 국제캠퍼스 ↔ 영통역 셔틀버스

국제캠퍼스 출발		영통역 출발	
사색의 광장	08:20, 09:50, 11:20, 12:50, 14:20, 15:50	영통역 (3번 출구)	08:30, 10:00, 11:30, 13:00, 14:30, 16:00
요금 500원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운행이 없습니다.
※ 교통상황 및 도로사정에 의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캠퍼스 사무처장

9월 둘째 주(09.05~09.09)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취업 · 진로 준비! 취업진로지원처와 함께 하세요.’

1. 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연대

행 사 명	일 시	장 소	비 고
IBK 기업은행 채용설명회	9.5(월) 15:00~17:00	청운관 B17호	
IBK 기업은행 채용연대	9.5(월)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크레용웍스 채용설명회	9.5(월) 14:00~16: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LG 상사 채용연대	9.5(월)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KDB 산업은행 채용설명회	9.6(화) 14:00~16:00	청운관 B17호	
현대그룹(그린푸드,백화점,홈플러스) 채용설명회	9.6(화) 16:00~18:00	청운관 B17호	
에스원 채용연대	9.6(화)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KT DS 채용연대	9.6(화)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롯데그룹 채용설명회	9.7(수) 15:00~17:00	청운관 B17호	
롯데그룹 채용연대	9.7(수)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예금보험공사 채용설명회	9.7(수) 14:00~16: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삼성증권 채용설명회	9.8(목) 13:00~15:00	청운관 B17호	
CJ 채용설명회	9.8(목) 15:00~18:00	오비스홀 15호	
국내외 스타어디스투어드 채용연대	9.8(목) 10:30~17:30	청운관 1층 상담실	
LG 디스플레이 채용설명회	9.9(금) 14:00~16: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SK 네트워크 채용연대	9.9(금)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사전 신청 필요(행사 당일까지 가능) - 종합 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연수 신청 - 해당 설명회 신청하기 클릭 - 원료

● 참석할조건 발급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생명화장 연구에서 발급 및 배부)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를 참고해 주십시오.

2. 2016 NCS7판 직무중심 취업교육 신청 안내

대 상	신청기간	일 시	장 소	비 고
2016. 2월 및 2016. 8월 졸업자, 2017. 2월 졸업예정자 (서울 강소기업 취업 희망자중 30명 내외(선착순 마감))	8.22.(월) ~ 9.5.(월)	월 9(수) 12:00~14:00	청운관 306호	교육료 없음

※ 자세한 안내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khs0045@khu.ac.kr로 신청.

3.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취업상담)

● 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질문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를 전략 등

● 상세 내용

상담유형	신청방법	컨설팅트	일 시	장 소
개 인 상 담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상식/상담 메뉴에서 신청 (컨설팅트별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분야별 컨설팅트 4명	월 ~ 금 (각 컨설팅트별 일정 상이함)	오비스홀 354호,356호 제1법과대학 107~2호 취업진로지원처 6번 상담실

● 상담 신청자 의무사항 : 취업준비도 검사 참여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 후 각 1회(총 2회) 참여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취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지참(필수)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기획 - SNS 사건 · 사고

지난해 10월 동아리 단독방서 발생
해당 학생 징계...온라인 교육 계획

SNS내 성희롱, 우리학교는?

설지연 기자 jv0622@khu.ac.kr

최근 고려대,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 내에서 학생들 간의 SNS를 통한 성희롱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우리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지난 7월 4일 학생회관에 게재된 대자보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지난 10월 한 동아리 구성원 간 SNS 단체 채팅방 내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모멸감을 주는 대화를 주고받아 발생한 사건으로, 가해자들이 최고 정학 3개월과 근신처분 등을 받으며 마무리됐다.

대자보는 이에 대한 학교의 징계결정이 ‘츽방망이 처벌’이라 비판하는 내용이다. 또한, 가해자들이 지인에게 피해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설해 ‘비밀유지 서약서’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았고, 징계 처분 기간이 방학 기간에 포함 돼 징계가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성평등상담실 송혜경 팀장은 “징계 수위 결정은 피해자의 요구, 가해자의 반성 여부, 사건의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학생상벌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징계 전까지 피해자 및 가해자와 여러 차례 상담해 이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며 대자보의 내용이 사실 전부를 담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징계과정은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전례가 없었던 사건인 만큼 타 대학의 사례를 참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학생상벌위원회의 2차례 회의 끝에 징계수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임우경 상담원은 “사건이 10월에 접수되고 11월까지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건 조사와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12월초에 가해자들이 학생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징계가 즉각적으로 처리돼 방학시기와 겹친 것이지 징계수위를 약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밝혔다.

덧붙여, 강주현 상담원은 “가해자들에게 외부전문가의 성폭력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받게 했으며, 학기 중 피해자들과 같은 과목을 수강하지 않도록 공간분리조치를 시행했다”며 충분한 후속조치가 있었음을 설명했다. 또한 강 상담원은 “사건

처리 과정 중 가해자가 사건에 대한 비밀 보장 서약을 위반한 정황이 신고되어 그 가해자에 대해 가중 처벌로 정착처분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대학사회 내 성희롱에 대한 개념 정립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왔으나 이번 우리 학교를 비롯한 대학사회의 사건을 통해 대학생들의 SNS를 통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담당 상담원은 사건에 따른 적절한 징계에 앞서, 가해자의 문제인식부재에 따른 인식 제고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 채팅방에서 해당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가답하는 것 뿐 아니라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또한 가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SNS 단체 채팅방 성희롱
문제인식 부재

SNS 채팅방은 사적 공간으로서, 제한된 동성 구성원 간 벌어진 음담패설 행위를 선불리 범죄로 규정하고 사회적 단죄로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있으나,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SNS 단체 채팅방은 전파가능성과 기록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의 기준이 되는 ‘공연성’이 인정돼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적인 대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학사회의 잇따른 SNS 성희롱 사건으로 변화한 소통환경에 걸맞는 디지털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 도된다.

서울대는 이번 단체 채팅방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2017년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성희롱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추진 중에 있다. 우리학교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16년 ‘신입생 세미나’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SNS내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단체 채팅방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도 학내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렸다.

이 밖에 성평등상담실은 신입생 외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강 상담원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소모성 갈등 발언 제재 ‘적절’ ... 지

경희대숲, 발언 제재 논란

김수진 기자 suj_in_kim14@khu.ac.kr

“혹시 그 폭행범 성별이 어떻게 되요?”
지난달 17일 페이스북 경희대 대나무숲 페이지(경희대 숲)에 모 학과의 강압적인 술자리 분위기에 대한 글이 게시되자 이에 가해자의 성별을 묻는 댓글이 달렸다. 성별 질문으로 시작된 이 댓글은 곧 최근 화제가 된 페미니즘 논란으로 순식간에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댓글의 가치 개입을 두고 논쟁이 심화되자 경희대숲 관리자는 이에 제재를 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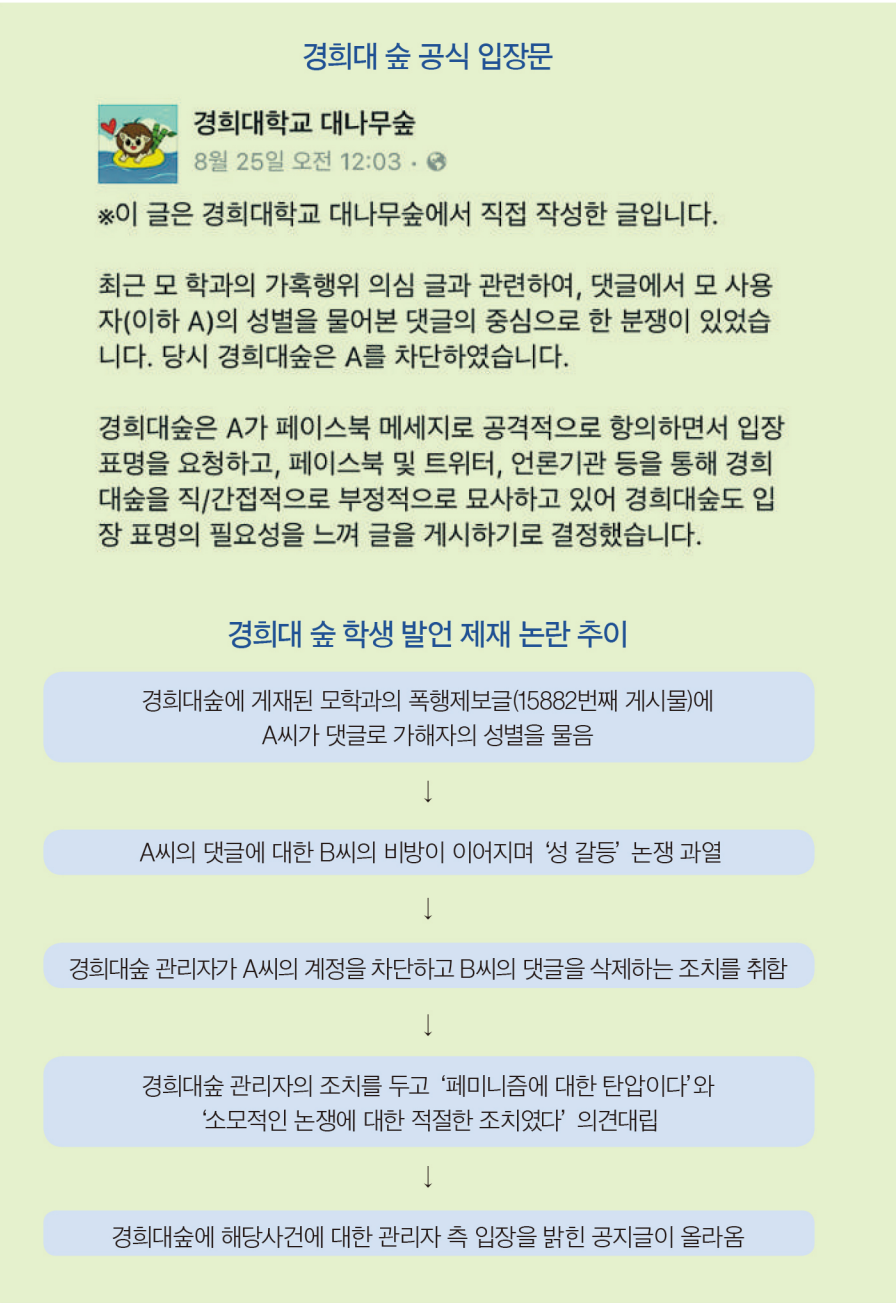
최근 인터넷상에서 ‘여성우월주의’, ‘남성혐오’등을 주장하는 일부 페미니스트의 자극적인 언행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여성의 권리신장을 외치던 기존 페미니즘의 기조와는 달리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며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을 키우게 됐다. 곧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회문제로 확대됐고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 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의 댓글사태로까지 번지게 됐다.

양측의 자극적 발언으로 인한
남성혐오 여성혐오 갈등 심화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 댓글에 응수해 성별이 왜 중요한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성별 논란의 장본인인 A씨는 그저 질문일 뿐이었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며 “페미니스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라고 되물었다. 이에 점차 논쟁은 ‘남혐(남성혐오)’, ‘여혐(여성혐오)’의 문제로 이어지며 상호 비방적인 언사로까지 확대됐다.

실제 A씨를 향한 댓글에서는 “가해자의 성별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 왜 굳이 한남(한국남자)을 비하하는 용어”을 사용하며 다른 학우들을 성 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느나” 또는 “위대한 페미니스트님”과 같은 언급이 있었고 이에 A씨는 “성 차별주의 폐해(페미니즘 혐오의 줄임말) 남학우분들, “여학우들이 훨씬 똑똑한 것”이라 응수한 바 있다.

논쟁의 과정에서 A씨가 본인의 SNS에 최근 논란이 있는 페미니즘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옹호 발언을 게시한 것과, 갈등을 일으킬 의도로 성별을 묻는 댓글을 달았다고 판단되는 발언 또한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확인됐다. 곧 “A가 의도적



인 성 갈등을 조장했다”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개인 신상정보가 SNS상에 노출되고 개인적인 비방에 휩싸이게 되자 이로 인해 A씨는 학교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됐다.
이처럼 여론이 과열되자 경희대숲이 첫 댓글을 단 A씨의 계정을 삭제하고 이 논쟁을 부추겼다고 판단되는 B의 댓글을 삭제하는 등의 제재 조치에 나서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발언에 대한 경희대숲의 제재가 정당한가?’에 대한 분분한 의견이 쏟아지고 곧이어 타 학교의 커뮤니티나, 각종 SNS로 까지 회자되며 빠르게 사태가 재 확산됐다.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 올라온 한 글은

경희대숲의 이 같은 조치에 관해 옹호하며 A씨가 성별 분쟁을 일으킬 의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A의 발언은 명백히 차별, 혐오 발언의 의도가 있고 분쟁을 조장하는 류의 댓글”이며 “이를 순수한 궁금증으로 옹호하는 것은 기만행위”라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학교 윤경석(물리학 11)씨는 A씨가 본인을 성 갈등적 요소가 있는 말로 본인을 비하했다며 A씨가 맹목적인 남성혐오의 의도가 있었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하며 경희대숲의 조치에 대해 옹호했다.

반면 우리학교 여성주의 웹진 SOON은 입장문을 통해 경희대숲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공론장으로서 “대숲지기들의 일방적인 연결조치는 학내 다양한 사안의 갈등을

2016학년도 2학기 KHU 사회진출 지원 5 Steps 프로그램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1 STEP	신입생세미나				
	프로그램명	일정	문의처	주요내용	비고
	신입생세미나	5.23~5.25 (1주) 11.21~12.7 (3주)	취업진로지원처	사회진출 마인드부여로 착실한 대학생활 지원공예에 대한 초기 이해	신입생 전체
2 STEP	담임교수제				
	프로그램명	일정	담당 및 문의처	주요내용	비고
	담임교수제 (진로상담교수제)	9월~12월 (학기별 1회)	지정 교수 (단과대학 및 학과)	학기당 1회씩 배정된 교수님과 상담	미실시자는 수강신청정시 최종 2일 접속불가
3 STEP	취업소스쿨				
	프로그램명	일정	담당	주요내용	비고
	NGO/NPO분야	금10:00~11:50	한영아		
	건설/플랜트분야	목10:00~11:50	이복상		
	공기업/공무원/고시분야	화14:00~15:50	김성환		
	공학분야	목16:00~17:50	임상민		
	금융분야	금16:00~17:50	이영현		
	멘토링과 함께하는 커리어 컨설팅	월10:00~11:50	김광수		
	바이오/생명/화학물분야	수09:00~10:50	유재호		
	스마트 마케팅 분야	화16:00~17:50	이혜원		
	외국계 기업분야	금14:00~15:50	조창현		
	자기개발과 취업전략	금12:00~13:50	고경재		
	자아발색을 통한 진로설정	화12:00~13:50	김민희		
	진로 동기강화	화12:00~13:50	장윤정		
	진로 의사결정을 통한 목표설정	월14:00~15:50	이영아		
4 STEP	현장연수활동				
	프로그램명	일정	담당 및 문의처	주요내용	비고
	단기현장연수	학기중 or 방중	단과대학	4주(160시간 이상), 1~3학점	전공학점인정표에 의거 전공 or 자유선택
	장기현장연수	학기중	단과대학	8주이상~24주미만, 6~15학점	
	채용연계형	상시	취업진로지원처	공채형대로 기업공지	

사회진출 지원 5 Step- 사회진출 Skill 지원프로그램				
교육내용	일정	장소	강사명	강사이력
공제지원 A to Z (재용 전환, 서류, 면접 Total Solution)	8/3(수) 14:00~16:00 9/1(목) 18:00~20:00	다목적 세미나실	주요일 주요일	(현) 경희대학교전문컨설팅센터 (현) 삼성그룹(세종로지식)/SK그룹(여의도)/한화그룹(개포동)그룹&E/STX 그룹(여의도지근무 - 인사총무팀)무 총합 및 그룹대중 공채지원담당
경영전략지원을 위한 발표기	9/1(목) 18:00~20:00	학생회관 2층 다목적 세미나실	오영욱	(현) 쌍용자동차 (현) LG화학(마곡지점)비밀정보이사 (전두소마케팅팀장, 한국존슨 Marketing Manager (전한국 P&G 마케팅본부 Brand Manager
제조공장 생산관리지원을 위한 발표기	9/5(목) 16:00~18:00	공과대학 107호	임영민	1. EIP(Process Engineer)의 R&R? 2. 제조공장에서의 Planning이란? 3. SPC(Sales & Operation Performance) Process 소개 4. MPS(Master Planning Schedule Accuracy) 5. 생산관리의 부문별 업무특성 및 필요역량 6. 생산관리 필요역량을 기반으로한 이력서 및 자소서 작성방법
블루오션 철도공기업	9/6(화) 18:00~20:00	학생회관 2층 다목적 세미나실	김수연	1. 왜 철도공기업에 지원해야 하는가? 2. 철도공기업에 지원 시 중요 포인트, 직무소개, 트렌드 3. 최종합격률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현직자의 풀림 4. Q&A - 이번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현재 공무원 준비중인 문과생 2. 공기업 준비중인 공대생
소셜 빅데이터 마이너로 가는 길	9/7(수) 18:00~20:00	학생회관 2층 다목적 세미나실	이기형	-소셜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소셜 빅데이터분석기가 되려면 어떤 준비가필요한가? -데이터과학자가 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영업 마케팅 지원을 위한 발표기	9/1(목) 17:00~18:30	학생회관 2층 다목적 세미나실	유재호	영업 및 마케팅분야 기본역량 역량을 따른 서류작성 전략 사례로 살펴보는 서류작성 노하우영업마케팅에 취업하기 위한 비법
내안의 경쟁의 힘 찾기	9/7(수) 12:00~14:00	학생회관 2층 다목적 세미나실	장윤정	슬관적으로 하는 자신에 대한 비하적, 부정적 태도를 점검하고 자기 강점을 만들어 내안의 경쟁적 힘을 찾아도록 돕는다.
에너지 공기업 실전 준비	9/8(목) 18:00~20:00	학생회관 2층 다목적 세미나실	김광수	1. 에너지 공기업 실전 준비 가. 자기소개서 기술 인성 면접 준비 전략 나. 에너지 공기업 기업문화
일노의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토리텔링 자소서	9/8(목) 18:00~17:00	학생회관 2층 다목적 세미나실	백지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5단계 구조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라 인사담당자의 입장에서 다시봐라
이공계 기술영업 지원을 위한 발표기	9/8(목) 18:00~20:00	전지정보대학 227호	임영아	이공계업 출신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술영업 직무'를 중심으로 기법 및 기술영업 직무까지 리뷰하는 시간 직무에서 요구하는 직업적 역량과 적성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조사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룸
HR은 무엇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9/9(금) 16:00~18:00	학생회관 2층 다목적 세미나실	한우민	1. 현대HR의구성 -Center of Expertise - Business Partner 2. HR의 각 부문별 업무특성 및 필요역량 3. HR의 필요역량을 기반으로한 이력서 & 자소서작성방법
				(현) British American Tobacco Korea 인사부처장 -채용, 교육, 인력평가노동조합관련업무수행경력 및 외국계해업관련간단다수 (연세대, 고려대, 이대, 서강대, 부산대, 경상대등)

교육내용	일정	장소	강사명	주요내용	강사이력
대학생부터 시작하는 커리어 관리가 나만의 미래를 변화시킨다	9/29(목) 17:00~19:00	학생회관 2층 다목적 세미나실	윤준민	커리어경험의 중요성 커리어설정, 커리어 공유를 통해 시작하는 나의 커리어 공공기관 커리어의 경험 찾는 방법	(현) R&D G.S 대표이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아주대 학교 객원교수, SK 그룹, E&C, 교보생명, WFS 등 주유기업 컨설팅 및 기업교육,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등 유망 대학 프로그램 운영
2017년 취업시장의 전망 취업준비를 위한 여러가지 것들	10월중	미정	이완	2017년 취업시장의 전망 취업준비를 위한 여러가지 것들	웨이이진진대표이사 현_LeadershipQCenter센터장 현_중앙성리교육연구소/정부,서울시출연기관/소장 현_메가스터디대표강사(전국최다다)

인적성 검사 완전정복

교육내용	시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인적성 검사 준비전략 강사 : 이완대표	9/2(월) 16:00~20:00	생명과학대 시청각실	생명과학대 시청각실	AI자적성(5인성) 합격예측검사 준비전략강의
인적성 검사 Final 특강 강사 : 이완대표	9/29(목) 17:00~20:00	동서의학대 시청각실	동서의학대 시청각실	주요대기업 출제 문제유형별 적성적 접근방법
한티자동차그룹 LG그룹 삼성그룹 CJ그룹 SK그룹	10/5(수) 17:00~19:30 10/6(목) 17:00~19:30 10/11(화) 17:00~19:30 10/12(수) 17:00~18:00 10/18(목) 17:00~18:30	10/5(수) 17:00~19:30 10/6(목) 17:00~19:30 10/11(화) 17:00~19:30 10/12(수) 17:00~18:00 10/18(목) 17:00~18:30	생명과학대 시청각실 생명과학대 시청각실	실선 시험형준형 형상을 위한 동일 오리 시험 오리의형준형 시험 문제유형별 적성적 접근방법

*신앙방법 : 모든시험에는 학생자부담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참조

"면접" 완전정복

교육내용	시간	장소	주요내용	강사이력
모의면접 (인성면접)	10월~11월 매주 금요일 14:00~17:00	지정강의실	모의면접 - Feedback	강사 : 조유일 외 (현경희대학고전문컨설팅센터 (현삼성그룹(세종로지식)/SK그룹(여의도)/한화그룹(개포동)무 총합 및 대졸공채지원담당
면접을 이기는 면접기법	9/21(수) 17:00~18:30	학생회관 2층 다목적 세미나실	면접이중문항면접면접기법이드 1인성면접 2PT면접 3토론면접 4협상/Game/협상면접	강사 : 유재호 (현삼성전자국내영업사업부CS01가페미 (전특수자출발연구소/매관리살인사/교육 (전지정진출발-영남/MKT전설,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건국대대학원교육장)면접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과 전략	10/6(목) 18:00~20:00	학생회관 2층 다목적 세미나실	8번기/공채 면접 전략 및 방법을 상세하게 풀이하며 코칭 실제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자 중심	강사 : 강경민 삼성전자 LCD 총괄(채용 사업부장 변경) 2. 한국중부발전/전 3. 한국중부발전/전 4. 서울메트로

1:1 맞춤형 컨설팅

요일	시간	전문상담원	주요상담내용	비고
월~금	10:30~16:00	조유일	채용서류 Clinic 및 취업진로상담	* 채용 상담의 경우 이력서, 자소서 사전 업로드필수
금	12:00~17:00	강진	채용서류 Clinic 및 취업진로상담	*총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예약
목	전미리	자기 이해, 진로설정, 진로에 대한 고민 상담		

[주의사항]

- 1)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2) 접수-미감 : 선택순 마감
- 3) 프로그램 신청 후 불참자는 후회 타강좌 신청 및 상담불가(2학기7월2일)
- 4) 접수 및 문의 : 학생회관 1층 취업진로지원처, 전화 : 201-3061~5

www.career.khu.ac.kr / , https://www.facebook.com/khuca77/

나친 제재, 공론장 역할 ‘포기’

▲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이 지난 25일 게재한 입장문에 대한 댓글 중 좋아요 수 상위 100건을 추출해 어휘빈도를 분석해봤다. '분란'이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성별(57회)', '질문(37회)', '조장(33회)', '페미니스트(31회)', 등의 어휘도 많이 쓰였다. '분란'이 들어간 문장 중 45건이 '분란 조장'만을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선 A씨를 차단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대수 운영규칙에 따라 차단한 것이 타당했다는 의견은 3건이었다. 이번 분석은 지난 2일 기준 댓글 1,282건을 대상으로 R을 활용해 진행했다.

생각 자체

여성 사실 차단

비난

혐오 이유

남자

사실

논쟁

본인

사상

경고

발언

공론

이해

자책

신상

의견

입장

페이지

의도

학생

때문

정치

타임라인

지기관리자

침묵시킬 소지가 있다”고 말하며 SNS상에서의 발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SNS상에서 논쟁이 진행되던 도중, A씨의 신상이 유출 되고 개인적인 비방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자 “대화가 맞지 않는다 하여 상대방을 괴롭힐 권리는 없다”며 지나친 마녀사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이번 조치에 서울대학교숲은 옹호 반면 웹진 SOON은 자유침해

이에 경희대숲은 A씨가 대화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켰으며 성 차별적 발언을 일삼았기 때문

에 A씨의 계정을 차단하게 됐다고 밝히며 “A의 가치관 및 성별과는 관계없다” 고 덧붙였다. 또한 경희대숲의 제재 기준에 관련해서는 논쟁이 지나칠 경우 어느 정도는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필요 이상으로 과열되어 소송이 일어날 경우 일정부분 법적 책임을 지거나 학교 측으로부터 직접 제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다만, A씨를 비방한 측에 비해 A씨가 가중처분이 아니냐는 의혹에 관해서 차단과 삭제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크다고 느꼈으며 이와 관련해 대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으나 A씨가 가중처분을 받은 것은 부정하며 “상호 비방을 한

것은 맞으나 A씨가 추가적인 분쟁 확대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고 추가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사태에 관해 양측 모두 과잉반응이 아니냐는 비판 또한 함께 제기되었다. 페이스북의 한 이용자는 민감한 사안인긴 하지만 성별을 묻는 질문을 제기한 것 자체에 대해 서로 지나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선부터 판단과 일방적 비방을 자제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하며 소모적인 남녀갈등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한 “남녀의 차별을 동등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이퀄리즘’을 제시하며 성 갈등에 대한 치우친 의식도 함께 지적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선후배 간 ‘위계’ 새로운 관계문화 만들기 필요

‘러시아어학과 전 학생회장 게시물 논란’

정혜빈 기자 hb6770@khu.ac.kr

러시아어학과 전 학생회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10시 48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학생은 “15, 16들이 선배들한테 못 하는 것”이라는 첫 문장으로 저작편을 지목해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 S 군은 해당 게시물에서 “선배는 당연히 선배대접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는 더 심하게 당했으니까 15, 16학번은 선배의 행동에 대해 문제 삼지 말라”고 주장했다. 2시간 후 게시물은 25일 오전 자정 경에 본인이 자진해서 삭제했다.

시간표 공유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는 해당 게시물을 토대로 러시아어학과에 선후배 간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학생은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명히 잘못된 내용의 글이다”며 “민주상태였기에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과의 글을 올렸다. 게시물을 접한 러시아어학과 신입생 A씨는 “속에 담겨있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러시아어학과 후배들에게 하는 말 같아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학과 내 강압적인 분위기 의혹… 악습을 멈추기 위한 노력 필요

지금까지 대학 내에 군대문화를 답습한 부조리들을 다룬 사건은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그러나 해당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대부분의 학과는 자정의 노력을 거쳐 지금은 지나간 일이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다시 강압적인 선후배 관계에 대한 사건이 발생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선후배 간 위계질서로 인해 신입생은 기대와 다른 대학생활을 보내야 했다. 러시아어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오티)에는 ‘사발식’과 ‘동기주’ 전통이 있다. ‘챙겨줄테니 마시고 기절해도 참여해!’라며 ‘정 못마시겠으면 자리에서 빠져’라고 말하는 등, 선배는 이러한 전통을 강권한다. 비단 신입생 오티만의 일은 아니다. 나이가 많아도 학년이 높으면 존대를 쓰고 깍듯이 인사를 해야 하는 ‘학번제’ 또

한 신입생의 ‘기강’을 잡는데 한 몫을 한다. 15학번 B씨는 “선후배 관계에 친해져서 서로 말을 놓은 경우에도 다른 고학번 선배에게 혼이 난다”며 “강요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했다. 또한 A 씨는 “새벽에 선배에게 전화가 와 마지못해 술자리에 나가야 했던 날이 많아 힘들었다”며 “신입생 중 몇 명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페이스북 경희대 대나무숲 페이지에 제보도 하고 반향도 했지만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입생 때에는 분명 선배의 행동이 부당하다 여기지만, 자신이 선배가 되면 부당한 행동을 후배들에게 반복하며 이 ‘전통’이 답습돼왔다. 러시아어학과 현 학생회장인 서민교(러시아어학 2013)군은 “선배가 후배에게 밝게 술자리에 부르거나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학생회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간의 악습을 멈추기 위한 노력으로 작년까지 오티에서 진행됐던 ‘사발식’은 이번 해 15학번의 제안으로 없어졌다. A씨는 바로 위 학번이 “그들의 선배들이 했던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특정 학년뿐 아니라 학과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이 강압적인 선후배관계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화를 이루기 위한 협조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B씨는 “다음 해 선배가 된 16학번 학생들이 악습을 이어가지 않아야한다”며 “높은 학번 선배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더 이상 기대와 다른 대학생활을 겪는 신입생이 없도록 선후배 사이의 존중을 답습하는 전통이 이어져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및 실적등록 안내

2016학년도 2학기 자유선택과목 “사회봉사 1,2,3”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득 가능 학점

가. 성적부여 방식: P / F (2014학년도 부터 P/F 모두 성적표에 기재)

나. 최대 취득가능학점: 학기당 1학점, 총 2학점 (단, 200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최대 3학점)

2. 사회봉사 학점취득 변경내용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항목	2012~2학기 이전	2013~1학기부터
취득 요건	- 온라인캠퍼스 이수 후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 재·휴학에 관계없이 입학 이후 실시한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인정 기준	국공립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 불가능 ① 교외봉사 :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서울동행프로젝트(http://donghaeng.seoul.kr),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www.vms.or.kr)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내 발급이 가능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② 교내봉사 : 교내부서 및 단과대학에서 주관하는 봉사단, 취업진로지원처와 사전협의의 동아아 함)를 실시한 경우 ③ 한월 : 일괄 후 실시한 본인의 한월증서 원본, 사본 및 VMS 한월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문의 : 취업진로지원처 (031-201-3061)

구분	교과목 이수 (학점인정신청)	실적등록
대상	2016-2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학생	전체 재학생 및 휴학생
서류 제출기간	2016년 11월 1일(월) ~ 2016년 11월 24일(목) 17:00까지 *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일체 서류를 받지 않음	
제출 서류	1. 학점인정신청서	1. 실적등록 신청서
	2. 봉사활동확인서 원본 및 사본	
	3. 소감문	-

-제출서류양식은 http://service.khu.ac.kr 접속 후 정보마당-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회봉사 관련 상세사항은 공식홈페이지 http://www.khu.ac.kr - [공지사항] - [일반] 에서 반드시 확인

4. 기타 세부사항

가. 봉사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한다. (같은 날 실시한 한월+봉사활동 실적 제출할 경우도 적용) 나. 한월기록 제출을 통한 봉사시간 인정은 입학 이후 실시한 한월에 한하여, 교과목 이수에 요구되는 32시간 중 총 16시간까지 인정 가능하며 연도별 인정시간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2006. 2.28 이전	2006. 3. 1~2011. 2.28	2011. 3. 1 이후
한월증 1장 당 인정시간	15	8	4

취업동아리 모집안내

"시사 이슈" 동아리 수요일 14:00~15:30	- 신청자격 시사 이슈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취업 예정 학생 • 지난 한 주간의 종이 신문 및 TV 뉴스 등을 통해 시사 이슈 등을 공유하고 정리. • 정기적으로는 공채 지원 시 면접 전형 대비하는 효과 기대
"인사 ·노무" 동아리 수요일 11:30~13:00	- 신청자격 인사/노무 직무로 취업을 계획 중인 학생. (교육/총무 직무 제외) • HRM(인사관리), HRP(인사기획), ER(노무) 직무 관련 이슈 등을 공유하고 정리. • 정기적으로는 공채 지원 시 해당 직무 자원자로서의 직무역량 강화 도모.

1. 대상 : 2017년 상반기 중 취업을 목표로 준비 중인 학생(관심도가 높은 저학년도 참여가능).

2. 운영 방식

1) 각 운영 예정 시간 내에서 60~90분 정도 탄력적 운영 (기간동안 총 10회모임예정)

2) 전문컨설턴트가 진행 및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는 취업동아리 형태로 운영

3) 모임의 성격 : class + study + 동아리
(‘동아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임 구성원 간의 인간적인 유대감도 추구한다는 의미)

3.모집인원 : 동아리당 0명 (선착순 아님)

4. 신청 시 주의사항

1) 진지하고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들만 지원해 주시기 바람.

2) 각 반 별로 모집 상황에 따라 인원 관계 상 부족이하게 참여 희망 학생이 참여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람.

3) 중복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1.2순위 기재 요망)

5. 신청방법

1) 종합정보시스템 내의 '수업/성적/상담' -> '취업상담' 메뉴를 통해 신청(기준 11 상담 신청과 동일)
조유일 컨설턴트의 9월 11일(일) "시사이슈는 23시 상담신청, 인사노무는 23시30분 상담신청

2) 신청 기한 : 9월 11일(일) 23시

3) 신청 시 자유양식의 자기소개서(A4지 1~3매 이내 분량)를 함께 업로드 필수.
(‘지원동기’ 필수, 그 외에는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여 작성)

6.동아리 운영 등 설명회 일정 (20~30분 정도 소요 예정, 각 반 동시진행)

1) 1회차 : 9월 2일(금) 18시 (학생회관 2층, 다목적 세미나실)

2) 2회차 : 9월 7일(수) 12시 (글로벌관 406호)

3) 3회차 : 9월 7일(수) 14시 (글로벌관 406호)

7. 문의 : 취업진로지원처 031-201-3061~8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2016년 하반기 공채대비 “기업별 집중 자기소개서 컨설팅”

1. 대상 : 공채 지원 시 Only ‘자기소개서’의 적정성 여부만 컨설팅 받고 싶은 학생. (계열사 선택, 지원 직무 선택 등의 내용은 배제)

2. 운영 방식 : 기업별 특징일을 지정하여 자기소개서 Day 운영.

3. 컨설턴트 및 장소 : 조유일 (학생회관 105호 제2상담실)

4. 상담 시간 : 1인당 15분

5. 신청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내의 '수업/성적/상담' -> '취업상담' 메뉴를 통해 신청. (기준 11 상담 신청 방식과 동일)

6. 주의사항

1) 자소서는 각자 항목별로 모두 완성하여 직접 출력해 오시기 바람.(2부)
(업로드 하여도 사전 검토하지 않음 & 노트북 화면으로 상담 불가)

2) 상담시간이 짧은 관계로 반드시 시간 엄수 요망.

3) 해당 기업의 자기소개서 Day에는 그 해당 기업의 자기소개서만 상담 가능.

7. 세부 사항

1) 시간 계획 : 오전 10시~오후 1시(총 12타임) / 오후 2시~5시(총 12타임)

2) 상담 가능 인원 : 해당일 당 총 24명

8. 기업별 컨설팅 일정

기업명	현대차그룹	LG그룹	삼성그룹	SK그룹
자소서 컨설팅 일정	9월 5일(월)	9월 8일(목)	9월 12일(월)	9월 19일(월)

9. 문의 : 취업진로지원처 031-201-3061~8

보도

단과대 가용예산 4년 새 ‘절반’...정보공개 행정심판 제기

〈이동진 정경대학생회장〉

자율예산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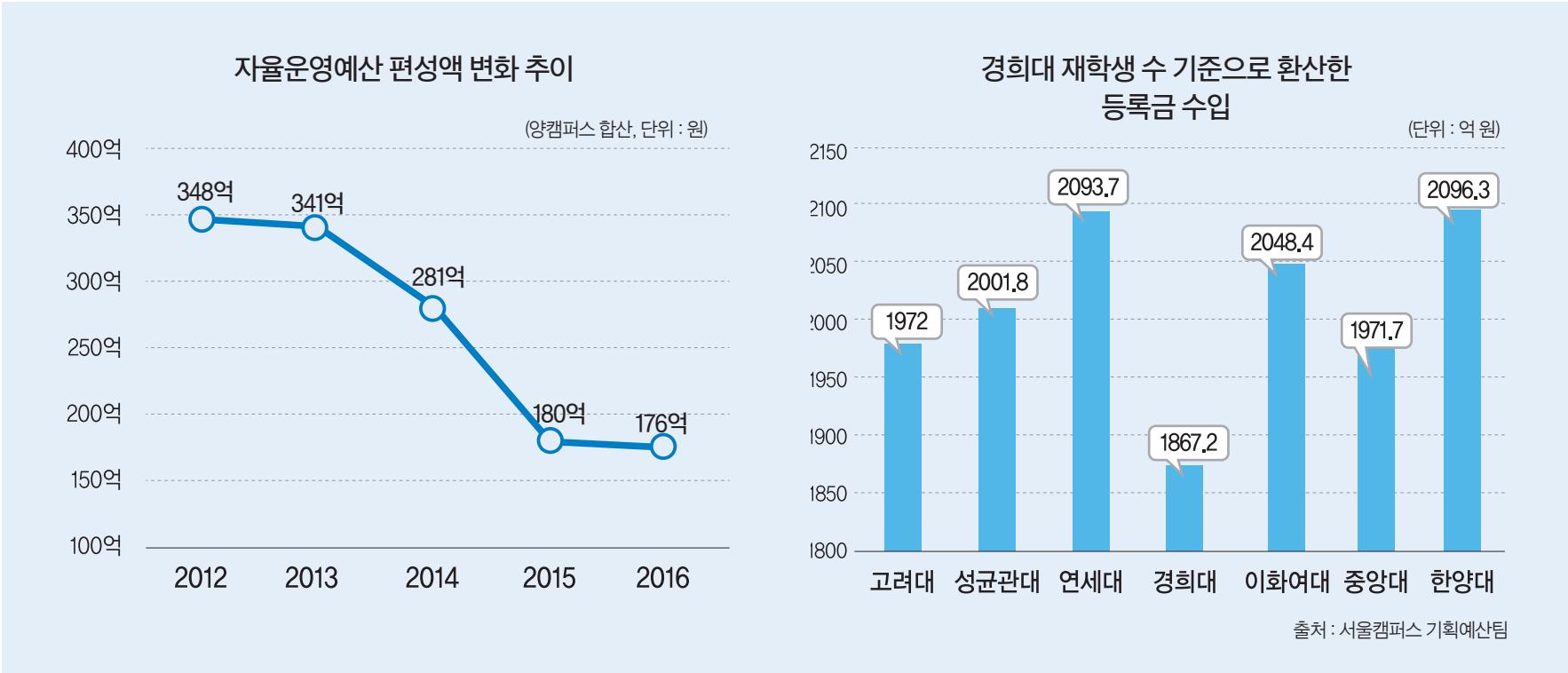
이수형 기자 dltd112@khu.ac.kr

지난 1일,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성원들이 ‘부총장교부금’을 각 단과대학에 분배하기 위해 모였다. ‘부총장교부금’이란 각 단과대학에 배정되는 자율운영예산을 보조하기 위해 부총장실에서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이다. 하지만 대학본부로부터 부총장교부금을 약속 받았음에도 학생대표들은 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캠퍼스(서울캠)에 할당된 부총장교부금 지원액이 총 1억 원인데 반해, 행정비용과 학생경비가 포함된 자율운영예산 총액은 4년 동안 약 84억 원 감소한 탓이다. 양 캠퍼스 자율운영예산 합계액은 약 172억 원 감소했다. 올해 각 단과대학이 운영할 수 있는 자율운영예산규모는 2012년의 절반 수준이다.

줄어든 자율운영예산 금액 중 일부는 단과대학이 지출하던 비용이 대학본부 소관으로 이전된 경우다. 우정장학 집행과 조교인건비, 직원인건비, 건축물관리비 집행 등이 대학본부 소관업무로 변경됐다. 그러나 위에 열거된 항목 이외의 자율운영예산 감축분은 대학본부 측의 재정축소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자율운영예산 산출공식을 (고정사업비+변동사업비+기타 항목)×95%에서 (고정사업비+변동사업비+기타 항목)×85%로 변경한다거나, 변동사업비 항목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축했다. 심지어 자율운영예산 편성액 외 특별지원금(O&P교부금, 부총장교부금) 지원액 또한 삭감됐다.

서울캠 기획예산팀 측은 이에 대해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으며, 타 사립대학 대비 등록금 수입이 대단히 적은 편”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과대학 자율운영예산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대학 학기당 평균 등록금(재학생 기준)은 약 3,696,200원으로 타 사립대학 대비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캠 한균태 부총장은 지난 5일에 열린 7차 등록금정책위원회(등책위)에서 “한양대는 우리보다 등록금수입이 230억 원 많다”며 “바꿔 말하면 매년 재정에서 230억이 적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Space21 기체상환 혹은 기타 고비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재정긴



축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서울캠 기획예산팀 이승민 계장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지만 올해 교비적립금은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자율운영예산 지원 감축분은 오롯이 대학본부 행정비용으로 흡수됐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 우리학교 등록금 수입 적어 지원 약속 불가능하다

단과대학 재정이 급격히 축소된 탓에 학생지원비와 실험실습비 지출 또한 함께 급감하고 있다.

미술대학 학생회 허건(조소 2011)회장은 “당장 다음 학기 모델수업에 필요한 모델료조차 없다”며 “판화실 기자재가 고장 나 교수님의 개인 작업실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고, 돈이 없어 고치지 못하고 있는 목공용 장비도 부지기수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단과대학 재정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 1월 2차 등책위에서 본래 총학생회(총학)가 대학본부에 요구한 특별지원금은 15억 원이다. 총학 단재민(미술학 2010) 부회장은 당시 10억 원의 학생지원비와 5억 원의 실험실습비를 추가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학생지원금 10억 원 중 5억 원은 주거비, 교통비 등에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보아 총학이 지난해 선거 당시 제시한 ‘교통비·자취지원금 1억 원 신

설’ 공약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한균태 부총장은 “학생 뿐 아니라 학교 곳곳에서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수입 확충안이 없는 현실 상황에서는 15억 원 학생경비 지원약속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다. 등책위 최종 합의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지난 6일, 총학은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1억 원은 축소된 학생경비를 복구하기에 턱없이 적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각 단과대학과 학생대표들이 감축된 자율운영예산을 되가져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5년에 자율운영예산 배정액 산출기준을 개정할 당시, 학생구성원이 참여하지 않는 ‘대학행정워크숍’에서 자율운영예산 삭감안이 발의됐으며, 자율운영예산 책정은 오직 대학본부가 결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등책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이 학생들이 축소된 학생경비를 보전 받을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다음해에 자율운영예산이 또다시 삭감된다라도 학생들이 예산감축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

게다가 특별지원금은 그 금액과 집행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 단과대학 예산안을 작성할 때 고려되지 못한다. 또한 중운위가 집행기준을 매년 재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이 연출되기도 한다. 정량적 지표에 기대 예산을 배정

하면 특별지원금의 취지와 사용처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올해 중운위에서 “자율운영예산이 감소한 총격이 적은 편”이라며 500만 원의 분배를 요청한 정경대학은 1,080만 원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사학과 추계고적당사, 철학과 ‘필리아컨퍼런스’ 등 중요 행사 진행이 어려워 학과 정체성마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한 문과대학은 당초 요구한 1,150만 원보다 적은 650만 원만을 지원받았다.

축소된 학생지원비와 실험실습비를 복구하는 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지원받은 돈이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재학생 수 등 정량적 지표를 고려해 분배한 결과다. 지난 1일, 중운위는 각 단과대학, 무용학부, 자율전공학과에 300만 원 씩 배정한 후, 재학생 수, 평균등록금 등을 고려해 나머지 금액을 분배했다.

경영상 비밀로 정보공개 거부 정경대학회장, 행정심판 제기

한편, 지난 4년 간 대학본부에 접수된 자율운영예산 관련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5건이다. 이 중, 공개처리 된 건은 단 2건이고, 1건은 면담처리 됐다. 또한 비공개처리된 정보공개청구 중 4건이 이의신청을 통해 공개 여부가 번복됐다. 대학본부는 자

율운영예산 관련 정보를 ‘경영상의 비밀’로, 공개될 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공개하지 않아도 좋다’는 관련 법률조항을 인용하거나 ‘방문열람만 가능하다’고 답변하며 정보를 통제해왔다. 자율예산 배정액 산출공식 등 ‘경영상의 노하우’의 공개여부 판단은 특히 엄격하다. 정경대학 이동진 회장(경제학 2012)은 행정감시 목적으로 지난 1일 미래정책원에 각 단과대학 자율운영위원회 회의록과 그 부속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는 거부당했고 이 회장은 현재 해당 정보 열람을 위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준비 중에 있다.



이 밖에도 호텔관광대학 박한진(조리·서비스경영학 2014) 회장은 3차 등책위 당시 “조리서비스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 학생들은 실습비를 53만 원 씩, 총 3억 원 정도로 납부하고 있지만, 해당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문과대학 박원규 회장(사학 2014)은 7차 등책위에서 “총학생회 세미나실 보수비용 4,700만 원 집행과정, 자율예산 증감분석자료 등의 정보를 학교에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적이 있다”며 “학교 재정운영이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에 의문이 든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큰 폭으로 감축된 자율운영예산에 뒤늦게 행정감시에 나서고 있는 각 단과대학 학생대표들은 대학본부의 정보통제에 곤란을 겪고 있다.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는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www.facebook.com/khunews
 <http://media.khu.ac.kr/khunews>

20년 세월이 깃든 포켓몬 고의 교훈

성공적인 스토리텔링의 비결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IT디자인융합학부 교수

지난 여름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다녀왔다. 비엔나에 가면 반드시 들러 봐야 할 곳 중 하나가 벨베데레 궁전이다. 지금은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궁전 안에는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 등 오스트리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미술가들의 작품들이 걸려 있다. 벨베데레 궁전에 도착해보니 출입문 유리에 예상치 못한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노란 피카츄가 앙증맞은 얼굴로 활짝 웃고 있는 포스터였다.

내용을 알아보니 미술관 개관 이래 지금껏 단 한 번도 실내 작품 촬영을 허용치 않았던 이곳에서 당분간 스마트폰 카메라에 한해 촬영을 허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미술관 안에서 포켓몬 고 게임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라고 한다. 유서 깊은 미술관이 오랜 세월 굳게 지켜왔던 전통과 규칙이 포켓몬 고 게임 때문에 깨어졌으니 포켓몬 고 게임 열풍의 위력이 대단하긴 하다. 덕분에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 유명한 명작 〈키스〉 앞에서 당당히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인증샷을 찍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포켓몬 고 열풍 스토리텔링의 힘

포켓몬 고 열풍이 불자 예상됐던 이야기가 즉각 터져 나왔다. “우리 나라가 명색이 IT 강국이고 게임 강국인데 포켓몬 고 같은 게임 하나 왜 못 만드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도 포켓몬 고 비슷한 게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포켓몬 고 같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만한 게임은 그저 비슷하게 따라한다고 해서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포켓몬 고 게임의 성공 요인은 증강현실



(AR)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포켓몬 고에 적용된 증강현실 기술은 그리 새롭지도, 아주 대단하지도 않다. 국내 벤처 기업들도 얼마든지 당장 구현 가능한 초보적 기술이다. 이미 5년 전 국내에서도 KT가 포켓몬 고와 비슷한 ‘올레 캐치캐치’란 증강현실 게임을 출시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그런데 포켓몬 고는 성공했고 올레 캐치캐치는 실패했다. 이들의 성패를 가른 요인은 기술력이 아니라 캐릭터와 스토리텔링의 힘이었다.

닌텐도가 포켓몬이란 캐릭터를 처음 세상에 선보인 것이 1996년이다. 무려 20년이란 세월이 캐릭터 속에 깃들여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매력적인 스토리텔링까지 만들어져 있다. 포켓몬 마스터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며 포켓몬을 수집하고 이를 육성시켜서 대결한다는 세계관이 그것이다. 이런 기반이 있었기에 포켓몬 애니메이션을 즐겨 보고, 포켓몬 캐릭터들을 매장에서 구매하면서 20년 간 성장해 온 사용자들의 마음이 다시 포켓몬 고 게임으로 쏠린 것이다. 결국 관건은 기술이 아니라 스토리이다.

미국 히어로 만화의 양 대 산맥 마블과 DC는 수십 년 간 지속적으로 자사 소속의 다양한 스토리를 개발하고 어벤저스 시리즈나 저스티스 리

으로 스토리를 확장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왔다. SF 영화의 교과서라 불리는 〈스타워즈〉는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끊임없이 새로운 캐릭터를 등장시키면서 거대한 서사 구조를 완성시켜 나갔다. 판타지 영화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반지의 제왕〉도 오랜 북유럽 신화 속에 묵혀 있던 수많은 종족과 괴물들을 스크린 위로 끄집어 내 캐릭터화에 성공시켰다. 이렇듯 성공한 문화 상품은 그 배후에 다 저마다의 고유한 스토리텔링 전략을 가지고 있다. 전략은 고사하고 당장 세계 시장에 내놓을 마땅한 캐릭터도 없는 마당에 증강현실 기술에 투자와 지원만 확대한다고 포켓몬 고처럼 세계적인 문화 상품이 똑딱 만들어져 나오리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풍부한 국내 자원 진득한 숙성과정 필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잘 찾아보면 발굴해서 성장시킬만한 자원은 많이 있다. 멀리서 고대 설화와 전설 속 캐릭터에서부터 가깝게는 웹툰, 창작 애니메이션, 그리고 세계를 열광시키는 한류 스타들에 이르기까지 매력적인 자원은 다양한 영역에 폭넓게 포진해 있다. 실제로 스토리텔링을 위

한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늘 단발적이고 고립적인 방식으로 그치고 말았다. 구미호는 수십 년 동안 여름 한 철 납량특집 아이템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뽀로로나 꼬마버스 타요가 인기를 끌면서 아기공룡 둘리는 어린이들의 대통령 왕좌를 물려주고 뒷방으로 사라졌다. 그 많은 아이돌 한류스타 중에 팬들과 함께 나이를 먹으며 오랜 세월 활동을 이어가는 이는 극히 드물다.

성공적인 스토리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캐릭터들을 키우면서 서로를 연결시켜 나가고 여기에 새로운 스토리를 입히면서 숙성시켜 나아가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스토리로 자리잡는 것이다. 포켓몬 고가 증강현실 게임으로 인기를 끈다고 이렇게 숙성시킨 캐릭터가 꼭 증강현실 게임에 등장할 필요도 없다.

기술 트렌드는 끊임없이 바뀌기 마련이다. 탄탄한 스토리만 가지고 있다면 그때그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그것을 활용하면 그뿐이다. 뽀로로와 둘리가 함께 꼬마버스 타요를 타고 활약하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만들어낼 창의성과 문화적 역량 그리고 진득히 긴 호흡만 있다면 더 이상 포켓몬 고의 성공을 부러워 할 일도 없을 것이다.

참여마당

이경서
(언론정보학 2016)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세요.

일전에 ‘그들이 씬만 타는 이유’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읽은 적이 있다. 20대의 남녀가 연애를 망설이고 연락만 이어나가는 이유가 생활고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분위기 있는 가게에서 두 사람이 한 끼 먹으면 2만원은 예상고, 디저트로 커피만 한 잔씩 마셔도 만원이다. 지갑열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어느새 연애는 사치가 되고, 결혼하려면 연애 안하고 돈을 모아야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형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종 미디어에는 환상에 가까운 드라마나 가상연애 프로그램들이 유행하고 있으며, SNS에는 연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이트 장소들이 범람하고 있다. 현실과 반대로 눈은 점점 높아지는 모순이다.

필자가 얼마 전 중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노부부가 주문한 탕수육이 많으며, 탕수육을 몇 조각 털어서 필자에게 나눠주었다. 받지 않으려 하였으나, 손사래 치며 받으라는 노부부의 말쑥에 감사하고 탕수육을 받았다. 새삼스레 노부부의 대화 내용에 신경이 쓰여 언뜻 들어보니, 시장을 보기 위해 두 분이서 나오신 듯 했다. 아마도 그 노부부는 그렇게 부유하신 분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행복해보였고, 낯선 청년과 선풍 음식을 나눌 만큼 마음이 부유한 분들이었다. 한 강에서 들었던 말이 생각났다. 결혼은 30점짜리 남자와 35점짜리 여자가 만나서 100점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노부부는 첫 만남에서 서로 100점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100점을 완성한 행복한 한 쌍으로 보였다. 그 노부부의 세대보다 지금의 세대가 부유하지만, 살기 좋은지는 모르겠다. 사랑조차 지갑사정을 걱정하고, 서로의 조건을 따지고 쟁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바보취급 당하는 시대다.

생활고·앓은 지갑의 이유로 후회하기 보다

꾸밈없이 마음껏 사랑해보자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아닐까? 한 교수님을 취재하다가 들은 이야기다. 요즘 학생들은 꿈에 대한 강박증에 빠져서 정작 자신은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 꿈이라는 것도 고작 공무원, 건물주 같이 시한 것들인데, 그런 ‘겉으로 드러낼 꿈’이 없으면 허송세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였다. 젊었을 때 맘해도 보고, 미친 듯이 사랑도 해봐야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는다고 그러셨다.

그리고 보니 나도 언젠가부터 남과 나를 비교하고, 뭔가 그럴 듯하게 비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증이 생긴 것 같다. 자신을 주어진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여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내보일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해줄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힘든 이유는 ‘지갑이 얇아서’라기 보다, 꾸밈없는 모습을 사랑할 용기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니 마음껏 사랑하자. 일단 거울에 비친 나 자신부터.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J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문화

사람 없이 신뢰로 운영되는 ‘병윤네 무인마트’

학교 조경담당 공병윤 직원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 무더위가 절정을 달했던 8월 여름날, 서천동 사거리 달궈진 아스팔트 대로변에 포장마차 하나가 덩그러니 서있다. ‘병윤네 무인마트’다. 띄약별 아래 포장마차는 어느 때와 같이 평화롭다. 허름한 모습에 발걸음이 망설여지지만 ‘병윤네 무인마트’는 인근 주민과 자취생 사이에선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명소다. 지난달 17일, 3년째 같은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무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공병윤(55) 씨를 만나 봤다.

‘병윤네 무인마트’는 이름 그대로 사람 없이 운영되는 야채가게다. 줄지어 있는 야채봉지를 골라 구매액수만큼 바구니에 돈을 넣어 계산하면 된다. 이런 낯선 가게 운영방식에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 실체를 궁금해 한다. 무인마트를 운영하는 공병윤 씨는 사실 우리학교에서 조경작업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학교 일을 마무리한 후 저녁에는 농사일을 해야 하는데 가게를 돌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무인마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공 씨는 우리학교와 인연을 맺기 전엔 39년간 제과제빵사로 일했다.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빵을 만드는 일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지만 변화하는 제빵시장 환경에서 동네빵집 운영은 쉽지 않았다. 공 씨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빵집들이 등장하면서,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맛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네빵집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됐어요.”

하지만 빵집폐점이 오히려 인생의 전화위복이 됐다는 공 씨, 이 기회에 오래 전부터 꿈꿔오던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는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하는 일도, 처음 농사를 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 하루 종일 밭에 나가있어도 힘든 줄 모르고 어느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곧 농사일이 손에 익었죠.”

그는 좁디좁은 주방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을 느끼며 일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맞는 길임을 알게 됐다고 한다. 처음엔 작은 규모의 임차농으로 시작했지만, 주변인들에게 성실성을 인정받으며 약 200여 평으로 규모를 늘렸다. 학교 근처 야지에서 생산되는 공씨네 야채는 매일



3년 전부터 무인으로 운영되는 ‘병윤네 무인마트’와 공병윤씨

“학교 일로 가게를 돌볼 시간이 없어 무인 마트를 운영하게 됐어요. 무인 마트다보니 돈과 물건이 10% 정도 유실되고 있지만 가게의 취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의 양심을 믿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신선한 상태로 무인가게에서 손님맛이를 준비한다.

무인가게라 하면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면 어찌지?’, ‘바구니에 있는 돈을 그냥 가져가면 어찌지?’ 라고 우려할 것이다. “사업 초기에는 30%정도의 손실이 있었지만 점차 사람들이 가게의 취지를 이해하기 시작해선지 도난사고는 점차 줄어들어요. 지금도 물건과 돈이 10%정도 유실되고 있지만 무인마트를 유지하기 위해선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병윤네 무인마트’에는 감시카메라가 있다. 하지만 사실은 모형이다. “진짜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물건이나 돈을 그냥 가져가는 사람들을 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 있어요.” 도난사고에 의한 손실보다도 무더운 날씨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더 크다. 공 씨

는 “우리가게에서 취급하는 주 야채는 상주인데 올여름 무더위로 인해 이파리가 모두 타버렸어요”라며 흉작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공 씨는 학교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우리학교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학교 일이 끝나고 가끔 무인마트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자신을 알아봐주고 인사해줄 때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학교의 외국인 학생들도 곧잘 ‘병윤네 무인마트’에 방문하는데 신기하며 고맙다고 말했다.

무인운영과 포장마차의 형태로 인건비와 임대료가 빠져 ‘병윤네 무인마트’에서 판매되는 야채들은 다른 마트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또한 그는 무인마트에서 판매하는 모든 야채들은 농약 없이 재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맛이 좋고 인체에도 무해

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병윤네 무인마트’에는 매일 30여 봉지의 야채들을 각각 1,000원에 제공하면서 신선함과 저렴한 모두를 놓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전하는 말을 부탁하자 공 씨는 “요즘 경제가 어려워져 취업에 공부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우리학생들 힘냈으면 좋겠어. 내가 감히 쉽게 조인 할 수는 없지만 직업의 안정성만을 쫓는 것은 위험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좋아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형태로든 일단 시작해보길 권하고 싶어요”라며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아직 시작은 미약하지만 정식으로 점포를 내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는 오늘날 취직 또는 진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적잖은 울림을 주고 있다.

세계 초일류 융복합 대학

DGIST

2017학년도 봄학기 대학원 학생모집

21C 세계 융복합 과학기술의 중심, DGIST에서
지식창조형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로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봄학기 전형 원서접수

10.13^{Thu} ~ 10.27^{Thu}

전공 오픈랩

일시	장소
9.24(토) 12:00~17:00	DGIST 컨실리언스홀 L29 및 각 전공별 장소

- DGIST 무료셔틀버스 운행
- 기관 및 입학전형 소개, 전공 소개, Lab Tour 등
- 시외 교통비 지급 및 간단한 중식, 기념품 제공
- ※ 위 오픈랩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입학홈페이지 참조)

수도권 면담형 설명회

- 개최일자 : 매월 둘째주 금요일
- ※ 전공별 개최일시 등 세부일정은 입학홈페이지 참조
- 장소 : DGIST 서울홍보센터
- 전공별 교수와의 면담 운영(약 1시간 50분 진행)
- 사전신청 필수(신청자가 없는 전공은 설명회 미실시)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DGIST 입학홈페이지 참조

온라인 양식 제출
- admission@dgist.ac.kr으로 송부

전공별 모집과정

전공	과정
신물질과학전공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전공의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과정이 아닌 석사과정으로 입학가능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로봇공학전공	※ 석사과정 학생은 1학기의 수학과정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 가능
뇌·인지과학전공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뉴바이올로지전공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장학혜택 및 특전

※ 전공별 특성화된 장학혜택은 각 전공 홈페이지 참조

분류	내용
납입금 면제	전원 국비장학생 선발
교육 및 연구장려금 지원	▪ 박사과정 : 13,680,000원 + @/년 ▪ 석사과정 : 7,440,000원 + @/년
기숙사 입주	전원 입주 가능
해외연수 실시	전공별 해외 유수대학연수 지원(존스홉킨스 의과대학, ETH Zürich, UC Berkeley), 국제 심포지엄 참가 지원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	박사과정 대상 100% 편입 가능
국가 거대연구과제 참여	▪ DGIST 융합연구원 및 소속 9개 센터 (DGIST-LBNL신물질연구소, 마이크로레이저융합 연구센터, DGIST-ETH마이크로로봇연구센터, 고신뢰CPS연구센터, 미래자동차융합연구센터, 태양에너지융합연구센터, 헬니스융합연구센터, 핵심단백질지원센터, 웰에이징연구센터) ▪ 한국뇌연구원 ▪ 기초과학연구원(IBS) 식물노화수명연구단